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 소개 파트 2, 주제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룯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세션 2, 여호수아 입문, 2부, 주제와 신학입니다.

나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게 될 것은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그에 따른 몇 가지 보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신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측면에서 이 책은 왜 쓰여졌는가? 한 수준에서 그것은 기록되었거나 일반적으로 해석적인 역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해석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한 조각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위한 역사처럼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의 삶에는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요약 진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영토의 모든 부분과 그 땅과 도시들에 행하신 일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렌즈, 어떤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여호수아 시대를 가리키며, 그 땅은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큰 특징은 약속이 여기서 성취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건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종종 이 책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의 싸움과 갈등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책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책에는 확실히 극적인 기적이 있으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승리에 대한 영예는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모든 부분은 텍스트 자체의 핵심 부분에서 파생되어 일종의 거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인상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단서로부터 유기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나 다른 어떤 인간의 인물이 아닌, 이 책에서 하나님을 주연, 주연, 주인공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책에 나오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땅을 선물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성경의 모든 책을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분야인 구약성서에서는 아마도 한 단어라도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책, 창세기, 어쩌면 시작 등을 특성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평소에 떠오르는 단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착할 장소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선물로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다음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이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자본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것이 국가에 대한 일종의 타이틀로 대문자로 표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년 전,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속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약속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주연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땅이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초점이다. 그런데 어느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꽤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 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내 진술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에티오피아 땅이나 모압 땅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나는 우리가 자주 그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사이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나는
경건한 멘토, 교사, 목사들을 통해 이러한 이분법 중 일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 규칙과 규정, 법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것들이 정말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상속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그들의 유업으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일 중 하나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연습으로, 교육적인 연습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은 자리에서 다 읽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책의 개요를 두 가지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주요 레벨은 5, 6,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수준에서는 책 전체를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개요의 모든 지점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나 상속, 상속 또는 상속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지 분배에 관해 이야기하는 12장부터 21장까지의 장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3에서 21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요점은 우리가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를 생각해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 앞을 내다보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정화합니다. 사물을 기념하는 것 등등. 그 모든 것이 땅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 3장의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얻은 유효한 요점이라면. 그러면 책의 모든 부분에서 이를 지적하고 전체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구에서 이것이 내가 이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테마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것을 여호수아서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개의 주요 가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일곱 가지 주요 주제.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을 거치면서 이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땅,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이행 역시 흥미롭고 작은 하위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 한 번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배경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는 네 번째 주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와 광야 방랑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대체로 매우 반역적인 백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역사적인 서술 부분에서 민수기를 볼 것입니다. 스토리라인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계속해서 반역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훨씬 다른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따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다섯 번째 주제는 예배의 순수성이라는 전체 주제입니다. 거룩함의 개념.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책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성서의 거룩함의 개념은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악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과 언약궤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수성에 대한 개념, 즉 이스라엘이 새로운 곳에서 성장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에 대한 예배를 실천해야 한다는 개념은 이 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여섯 번째 요점, 여섯 번째 주제는 경건한 리더십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책에서 그는 대부분 실수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리더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리더십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땅이 안식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약속의 일부는 백성이 안식을 누리고 땅이 안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경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문학적 맥락에 관한 또 다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경의 흐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받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주제 설명의 7가지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David Howard 박사와 Ruth를 통한 여호수아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 여호수아 입문, 2부, 주제와 신학입니다.